

개태사 천황보살이 받은 계시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는 개태사 삼존불

개태사는 500명 이상의 스님이 국과 죽을 끓여 먹었다는 가미술(철학, 지안 회 참조)과 함께, '소원을 들어 주는 삼존불' 또한 유명하다. 개태사 석불은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중앙에 본존불을 모시고 왼쪽에 좌협 시 보살입상, 오른쪽 우협 시 보살입상이 나란히 서 있는 삼존불이다. 전체적으로 투박한 느낌이 드는데 특히 손은 다듬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친근한 느낌을 주는지도 모른다. 본존불의 높이는 4.5m, 양쪽 협시불은 3.21m이다. 고려 불상으로는 비교적 큰 편에 속하는 이 석불들은 당시 절의 크기를 짐작케 해 준다.

그러나 고려 태조 왕건의 사랑을 받아 한때 빛을 발했던 삼존불도 세월이 흐르면서 개태사의 몰락과 함께 아무도 모르게 땅 속으로 사라졌다. 그 후 수

백 년을 땅 속에서 잠자다가 1932년, 어느 불교신자의 꿈에 나타나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평소 불심이 깊었던 천황보살(본명,金光榮)이라는 보살은 밤마다 부처님이 나타나 삼존불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라고 계시(啓示)를 하는 꿈을 꿴다고 한다. 그 꿈이 하도 이상하여 꿈속에서 보여준 장소를 찾아 여러 사람들과 함께 파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삼존불이 묻혀 있었던 것이다.

흔히 개태사 삼존불은 정성껏 기도를 올리면 단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준다는 부처로 알려져 있다. 반드시 한 가지만 마음속으로 말해야하기 때문에 욕심 많은 사람은 감히 그 앞에 설 수조차 없단다. 하지만 소원이라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나쁜 일에 쓰이는 소원은 들어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개태사 삼존불에게 구할 한 가지 소원을 생각해 보자. 당신은 무엇을 가장 바라는가?

미륵출현시기에 관한 숨겨진 하늘의 비밀

천호산 개태사의 일주문에는 大天護山 三天一地 開泰寺라고 적혀 있다. 천호산 개태사에는 삼존불 뒤에는 미륵부처님이 이 땅에 출현하신다는 뜻이 숨겨 있다.

이러한 일주문의 뜻은 천황보살(金光榮)이 壬申年(1932년)에 계시(啓示)를 받은 입춘문(立春文)에 잘 드러나 있다.

歲在壬申 立春大吉 龍華彌勒 大宇宙 世界眞신 입춘대길 용화미륵 대우주 井 主人公 壬子生 亞聖正圓 任濟世主 眞龍出世 大田定座 正海印造化 佛龕龕 대전정 좌 정해인조화 萬法歸正 萬國朝眞 期必 壬申年內 만법귀정 만국조공 기필 임신년내 圓滿成就 萬萬歲 圓滿成就 萬萬歲 圓滿成就 萬萬歲

해설 : 임신년인 1932년 입춘대길이라. 극락정토(지상천국)를 이룩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미륵불(정도령, 메시아)은 우주의 주인공을 말한다. 여기서 임자생(壬子生)이란 북방을 뜻하는 말로 미륵불을 뜻한다. 이분은 승리한 하나님으로 바르고 원만하며 온전하신 분으로 죽음의 세상을 제도(濟度)하러 오신 분으로 하늘나라 샘물(井)인 감로수(감로해인, 이슬성신)를 들고 나오신다.

죄악 세상에서 네 생명물의 왕으로 출세하신 큰 인물이며, 땅에서 완성된 미륵불이시다. 감로 이슬성신(해인) 조화로 모든 종교와 학문을 통일하시는

분이시다. 천하를 다스리는 주인공이신 미륵불에게 만국이 조공을 가지고 올 것이다. 반드시 천지공사의 기초공사가 임신(壬申 1992년)년 안에 원만히 이루어질 것이로다.

미륵불(彌勒佛)은 경기도 김포의 감정리(坎井里)에서 출생하셨다. 위 입춘문에서도 우물 정(井)자가 들어 있다. 정도령(미륵불)은 우물 정(井)자가 들어 있는 곳에서 출현한다고 하여 정음(井邑)이 그런 의미에서 유의미한 곳이다.

그러나 정음이 아니라 바로 감정리(坎井里)를 말한 것이다. 미륵불 조희성 선생께서 출생한 감정리 사람들에게는 옛날부터 이곳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분이 출현할 것이라는 조헌 선생의 예언이 전해져 왔다. 조희성 미륵불께서는 양손에 임금 왕(王) 자를 쥐고 있으며, 가슴에는 북두칠성의 점이 있고, 두상(頭象)은 제왕(帝王)의 상이기 때문에 학문이 높으셨던 외조부께서 당신이 큰 인물이 될 것을 미리 예고해 두셨던 것도 다 연고가 있는 것이다.

미륵불께서는 1981년 8월에 세상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내려오신 후 1991년 8월에 인생들을 구원하는 방주(方舟) 즉 승리제단 본부 건물을 완성하여 천황보살이 계시받은 임신년(1992년)에 원만히 성취하리라는 예언에 응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개태사 천황보살(金光榮)이 壬申(1932)년에 계시받은 60년 후인 1992년 壬申年 9월 4일에 조희성 생미륵불께서 친히 개태사를 방문하셨으니 우연치고는 너무 신기할 따름이다. 이러한 것을 보아서 승리제단의 조희성 미륵불의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직접 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내섭 장로 / (주) 해동



왜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악이라고 했나요?

Why does the Bible say "To love oneself is the evil of evil."?

なぜ、聖書には自分を愛することが万悪の中の悪と記録されていますか？

▶ 하나님께서 마귀 영에게 점령당했던 비극적인 선악과 사건 이후, 하나님의 신은 마귀 영육에 갇히게 되었다.

After the tragic catastrophe of being defeated by Satan, the Forbidden Fruit, the spirit of God was imprisoned by Satan.

神様が魔鬼の靈に占領された悲劇的な「善悪を知る木の實」の出来事以後、神様は魔鬼の牢屋に捕らえら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 하나님은 선악과, 마귀 영에게 점령당함으로 영생을 잃게 되었고, 결국 아담과 헤와 그리고 모든 인류는 6천 년 동안 죽음을 면할 수 없었다.

Satan deprived God's immortality through the Forbidden Fruit, the Evil Spirit. So Adam and Eve died after all. And human mortality has followed mankind for over 6,000 years.

神様は「善悪を知る木の實」、魔鬼の靈に占められることで永生を失うことになったし、結局アダムとイブとそして全人類は、6千年の間、死を免れなかったです。

▶ 마귀 마음은 죄를 짓는 욕심이요, 그 욕심은 자존심에서 나온 다. 자존심이 곧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영이다.

Evil Spirit is sinful desire; the desire stems from ego(self-awareness). Ego indicates a sinful heart, evil.

魔鬼の心は罪を犯す欲で、その欲は自尊心から出ます。自尊心が、即ち、罪を犯すようにする魔鬼の靈です。

▶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나' 라는 주체의식이 바로 하나님을 6천 년 동안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마귀영이요, 선악과요, 6천 년 나이의 원죄이다.

Therefore, the self-awareness of all men is the spirit of Satan, the Forbidden Fruit, the very six thousand-year-old original sin which has imprisoned God.

だから、全人類の中にある「私という主体意識」が神様を、6千年の間、捕虜で捕らえている魔鬼の靈で、「善悪を知る木の實」で、6千年の年を取った原罪です。

우리말 바꾸기

띄어쓰기의 중요성

길을 걸어가다 이런 문구를 봤다. '서울시체육회'. 물론 이 문구의 참 뜻은 '서울시 체육회'이지만 만약 누군가가 장난으로 '서울 시체 육회'라고 띄어쓰기를 잘못 쓴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이것은 서울시를 조롱하는 글귀임에 분명하다. 또 띄어쓰기 한 칸 잘못으로 가장 붕괴사건도 있을 수 있겠다. 원래는 '얼마 새 끼손가락은 유난히 작다'



따라 '몸 만들어 오세요'로 해석하여 한바탕 웃음을 짓게 할 수도 있는 문구인 것이다.

옛날 같으면 위와 같은 이야기들을 웃긴 이야기로 흘려버릴 수도 있었지만 요즘같이 휴대전화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우리는 휴대전화의 메시지를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지만

가끔은 실수할 때가 있다. 특히, 요즘은 이모티콘을 사용하거나 말을 소리 나는 대로 한글 맞춤법을 고려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종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완벽한 한글 맞춤법에 맞추어 쓰지는 못할망정 상대방이 최소한 오해하지 않을 정도의 맞춤법은 써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승우 기자

속담 속의 영생학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소사)날 길이 있다

흔히 이 속담을 '큰 위기가 닥쳐도 그것을 피할 수 있다'는 뜻으로만 풀이한다. 그러나 이 속담의 진실한 뜻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격양유록에는 '天崩地坼素砂立'이라는 구절이 있다. 하늘나라가 무너졌지만 소사에서 구세주가 하늘나라를 회복한다는 뜻이다. 즉 현재 세상은 하늘나라를 마귀에게 빼앗긴 채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긴자 구세주가 나오시어 주인공이 받은 '흰 돌' (소사)에서 다시 하늘나라를 되찾게 되는 역사를 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구세주 조희성님께서는 5살 때 꿈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흰 돌'을 받았다. 그 '흰 돌' 위에는 흰 소(素)자 모래 사(砂)의 '素砂'라는 글자가 씌어 있었다. 이기는 자는 '흰 돌' 받게 되고, 그 돌 위에는 이름이 씌어 있고, 그 이름은 받는 자만 안다(계 2:17)고 했다. 조희성 이긴자께서 받은 '흰 돌'에 '素砂'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니 성경과 꿈이 딱 들어맞는다. 정보의 홍수 속에 거짓 정보들이 진실

인양 그럴싸한 말로 포장되어 넘쳐난다. 다수가 믿는다고 무조건 믿는 것, 오래된 것이라고 무비판적으로 믿는 것 등등 맹신이 판을 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검증되지 않은 맹신은 아마도 사후(事後) 천국론일 것이다.

인류 역사 이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천국을 갈망했지만 그곳에 가는 방법과 정확한 길을 아는 자가 없었고, 그 누구도 제시하지 못했다. 승리제단의 이긴자 정도령님께서는 6천 년 전에 무너진 하늘나라를 되찾아 이긴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흰 돌' (소사)에서 하늘나라를 회복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

『始終長野素砂地』라는 구절 역시 무너졌던 하늘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소사에서 시작하여 결국 소사에서 회복시킨다는 큰 뜻이다. 이긴자 구세주께서 받으신 흰 돌, 소사 땅에서 승리제단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끝맺게 될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는 곳은 바로 역곡송지 이곳 소사 땅인 것이다.*

참고문 기자

신간 안내

당신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영생의 비밀, 인류 최초 공개!

사람이 왜 죽는지 어떻게 하면 죽지 않는지, 사망을 이긴 원형지가 나와서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죽지 않는 방법을 세밀히 알려주고 있으니 누구든지 이를 배워 살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 사람의 몸속에 영생의 피가 있다. 이 영생의 피로부터 사람이면 누구든지 영원무궁토록 살고 싶은 마음이 나온다. 영생의 피는 공중 하늘에서 똑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왔다.

우리의 조상은 우주를 마음대로 날아다니면서 끝없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신 하나님(부처님)이었다.



TEL: 032-343-9985

시흥 서점점판매

· 인간은 선과 악, 생명과 사망, 양심과 비양심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중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다.

현재 우리의 의식을 주장하는 마음이 바로 '사자귀신' 이므로 이를 제거하는 마음의 투쟁을 실천해야 한다.

· 사람이 죽는 근본 원인은 질병과 노화, 사고 등이 아니라 피가 썩기 때문이다. 피가 썩기 때문에 병이 걸리고 피가 썩기 때문에 늙고 죽는 것이다. 따라서 피를 썩지 않게 하면 결코 죽을 수가 없다.

· 모든 경건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룬다고 한다.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율법이 자유율법이며, 양심이 주장하는 행동 강령이 자유율법이며 영생하는 율법이다.

* 승리제단은 자신의 마음을 양심이 주장하는 빈 마음, 평정한 마음, 은유한 마음, 평안한 마음, 건강한 마음을 갖도록 실천하여 인류와 더불어 영생할 수 있는 세상을 실현하고자 정진하는 곳입니다.